

지역 매아리

정읍시, 내일 정촌가요특구 준공식·축하콘서트 개최

정읍시가 내일 오후 5시에 신정동 정촌가요특구 일원에서 '천년부부사랑 정촌가요특구 준공식·축하콘서트'를 개최한다. 정촌가요특구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謠)'의 발원지이다. 앞서 시는 내장산 국립공원, 내장산 리조트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약 4만 5천여 평 부지에 △가요전시관 △정읍사 여인 집 △한식 체험관 △주막 3동 △취화당(누각) △포월지(인공호수) 등 정읍사 살화를 스토리텔링화한 시설물을 조성했다. 핵심시설인 가요전시관은 정읍사에 얽힌 이야기와 시대별·나라별 사랑노래로 이루어진 제전전시,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정리한 제2전시실, 다목적 공연장이 있다.

이날 행사에는 마칭밴드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준공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축하콘서트에는 인기가수 최성수·박강성·박주희·레이디들의 공연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대중가요 콘텐츠 기증사업과 기획전시회 추진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확보에 노력하겠다"며 "백제가요 정읍사의 위상을 높이고 아와 전통콘서트 등 이색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등 관광명소로 자리 잡는데 노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화분 매개 능력 우수한 '장원별 봉군' 딸기 농가에 공급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장원별 봉군을 딸기 농가에 공급했다.

센터는 지난 20일까지 수밀·월동 능력과 화분 매개 능력이 뛰어난 장원별 봉군 200개를 딸기 시설 하우스 13ha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정읍시 꿀벌연구회에서 '화분 매개 능력 우수꿀벌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장원별을 특성에 맞춰 철저하게 관리하고 월동준비까지 마친 화분 매개용 봉군이다. 장원별은 수밀력이 기존 벌 품종보다 20~50% 이상 우수하고 월동 일별 수가 많아 월동능력이 뛰어나다.

또 사충 제거율이 2배 이상 높아 낭충봉아부패병 등에 질병 저항성을 가져 일반 벌보다 지속관리가 쉽다.

또한, 봉군 세력이 강해 봉군 당 일별 수가 많아 화분 매개용으로 사용 시 기형 과일이 감소하고 당도, 산도 등에서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장원별의 활동력과 화분채집량, 수명 등 화분 매개 능력 평가와 장원별을 통해 수질이 이루어진 작물의 품질과 수확량을 조사해 장원별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실증 시험 중에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국원전동맹의 발전 위해”

전국 원전인근 12개 지자체 출범식 가져... 권익현 부안군수 부회장 선출

부안군을 포함한 전국 원전인근 12개 지자체가 2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국원전동맹은 부안군을 비롯해 전북 고창군과 전남 무안군, 경북 봉화군, 경남 양산시, 울산광역시 중구·남구·동구·북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금정구, 강원도 삼척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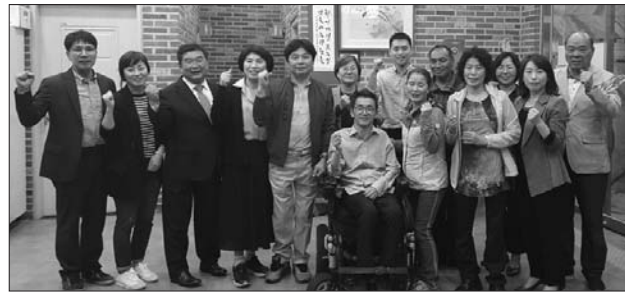
12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들 12개 지자체는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돼 원전 소재 지자체와 방사능방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원전인근의 지자체이다. 이날 출범식은 임원선출과 대정부 요구안 인건처리 및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대정부 요구안에서는 원전교부세 신설, 원전지원금 관련

현행법령 개정, 원전정책 수립 시 인근 지자체 의견 적극 반영 등의 요구 사항이 포함됐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으로 선출된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국원전동맹의 발전과 주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겠다”며 “원전교부세 신설 등 대정부 요구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서 고창선수들 값진 메달 획득하며 선전

고창군 장애인체육회 선수들이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값진 메달을 획득하며 선전했다.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서울시 일원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에 고창군장애인체육회에선 배구, 축구, 필드골프, 보치아, 태권도 5개 종목에 11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좌식배구팀은 전북대표팀에 고창장애인체육회 소속 남자 2명, 여자 4명이 주력선수로 출전했다.



고창군 장애인체육회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값진 메달을 획득하며 선전했다.

대회결과, 남자 11인제 축구DB(신수부)에서 홍재춘 선수 3위, 송영중 선수가 태권도(남자겨루기 -75kg) 3등, 시범종목으로 필드골프에 출전한 정병은 선수도 남자 2인조 단체전 통합에서 3위로 선전했다.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이호근 상임 부회장은 “국내 장애인 선수들의 최

대 축제인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지역을 대표해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고창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지난 3월에 고창군장애인체육회를 출범하고, 산하 5개 가맹기단체와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 지역 50여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더불어 행복한 희망의 미래로!

고창군-관내 13개 금융기관, 나눔과기부 민·관 실천협약 체결

고창군은 최근 유기상 고창군수와 관내 13개 금융기관(고창우체국,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 고창부인축협, 고창군수협, 고창군산림조합, 고창신협, 고창새마을금고, 고창농협, 대성농협, 선운산농협, 해리농협, 흥덕농협)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나눔과 기부, 인구늘리기, 고창사랑하기' 민·관 실천협약 제3호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은 고창군의 인구감소와 나눔과 기부에 민관이 상호 협력과 실천을 위해 지난 4월부터 4대 종교단체를 시작으로 6월 경제단체에 이은 세 번째 협약이다. 이날 협약에서 고창군과 금융기관은 우리사회의 극심한 양극화와 개인 이기주의,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나눔과 기부 문화 정착과 공동체 의식회복, 고창사랑하기 운동을 위해 범군민 인식개선 운동에 상호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협약에 따라 고창군은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으로 소외계층 없는 희망 군정 구현 ▲고창군 인구 인식전환 교육 및 정책 홍보 ▲고창군 인구늘리기 정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발굴 ▲금융기관 인구늘리기 추진사업 협조 지원 ▲고창군 금융산업 발전 정책수립 및 지원을 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한 '행복고창' 운동 전개 ▲노사가 상호 협력하여 자생적인 인구늘리기 실천운동 확산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등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 ▲금융기관 종사자의 '내고장 내직장 주소갯기' 운동 적극 전개 ▲공익부분, 학술·교육, 서민금융,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공익활동 확대 ▲고창사랑 고용하기, 고창물건 사기 등 고창사랑하기 운동 적극 동참 등이다.

고창군은 올해 군정의 최우선을 '사람 사는 고창'에 두고 군민생활 전반에 민·관이 협력하여 상생 발전하는 한반도 첫수도로 재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총력마무리, 로컬 잡(Job)운영, 농생명 식품산업 및 역사·문화관광 산업의 지역특성 브랜드화, 고창사람키우기 장학사업 확대, 농촌활성화 사업 등 정주환경 조성사업, 고창겨우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 365일 인문학 교실 운영, 고창군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지침 제정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인공지능시대 인문학 거두로 '주목'

한국대학신문, 대학가 차세대 리더로 이찬규 교수 등 선정

고창에서 소설가를 꿈꾸던 시절소년이 대한민국 인문학 거두로 성장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리더로 주목받고 있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한국대학신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 대학가 차세대 리더로 이찬규 교수(중앙대 국어국문학과·인문콘텐츠연구소장) 등 7명을 선정했다. 고창 출신인 이찬규 교수는 국내 '인공지능 인문학(AIH: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ities)'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기술이 역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람직한 전망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인문학이다.

이 교수는 "어떻게 인간의 가치를 지키고 인공지능과 공존할 것인지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인공지능인문학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고창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이 교수는 친구들과 놀다가 책 읽고 교리다 시 쓰고, 소설 쓰다가, 가끔 공부하던 기억이 또렷하다.

이 교수는 "시골이다 보니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 기회가 많이 주었다. 여러 대회에 참가하다가 글

쓰는 것이 굉장히 잘 맞다고 느꼈다. 중학교 때 소설가의 꿈을 품었다"고 회상했다.

작가배출로 유명한 중앙대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했고, 글 쓰는 문화보단 언어학에 더 관심이 쏠려 만 31살에 교수가 됐다.

이후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문학의 역할과 과제' 등의 특강을 진행하며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조화롭고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 교수는 고창군이 진행하는 '365 인문고창'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교수는 "인문학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구성원들의 불안과 분노를 해소하고, 환대와 배려의 문화가 만개하는 고창군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며 "문화적 지표가 중요한 시대인 만큼 인문학을 통해 군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고창군을 힘차게 응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대학신문은 '대한민국을 이끌 대학가 차세대 리더'로 인문학의 이찬규 교수 외 ▲유성준 세종대컴퓨터공학과 교수(인공지능) ▲순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학) ▲이국종 이주대 의대 교수(의학) ▲김빛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기초과학) ▲김현재 연세대 전기공학부 교수(반도체) ▲이지선 숙명여대 시각·영상디자인과 교수(예술) 등을 선정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앞장'

정읍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통행이 많은 동초등학교 등 8개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선'을 추가 설치한다.

기존 검정색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교체해 운전자들이 한눈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토록 한다는 취지다. 시인성을 확보해 속도 감속을 유도하고 집중도를 높여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지난 상반기 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을 시범 설치 운영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다는 평가에 따라 오는 10월 말까지 7천만원을 들여 8곳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구역은 △동초교 △내장초교 △한솔초교 △영산초교 △영원초교 △덕천초교 △교암초교 △대흥초교 등 총 8개교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또 파손되거나 노후 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을 신속하게 보수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노란신호등이 운전자로 하여금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하게 해 보행자의 횡단보도 교통사고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anmyeongju's Mulberry Wine.

정외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들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Premium Ohdi Wine

GIFT SET 1: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 750ml 1ea/12%

GIFT SET 4: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 375ml 5ea/13%

GIFT SET 6: 500ml 4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